

회사채와 기업어음의 차이

↙ **이자율 연 4.0% 이내**

어음이란 만기일에 어음종이에 적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장표 입니다.

어음만기시에 대금을 지급못하면 그 회사는 부도가 나게됩니다. 채권이란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특정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차용증서로서 발행자 즉 발행주체별, 기간별,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법에 따라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과 수익률 또한 차이가 나죠.

채권과 어음은 둘다 외부 차입을 한다는 점에서 같지만

차입기간, 발행조건등이 다릅니다.

1) **차입기간** : 어음은 만기가 1일 ~ 1년입니다. 통상 3개월이 표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그러나 **채권**은 보통 1년이상 장기채권이 일반적이지요. 따라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음을, 장기 자금을 사용할 목적이라면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것입니다.

↘ **어음보다 발행하기 까다롭다.**

2) **발행 조건** : 채권의 발행은 증권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발행해야 합니다. 그러나 어음의 발행은 채권 발행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BBB- 등급이상을 받아야 일단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최소의 자격을 갖습니다. 어음(기업어음)의 경우엔 B이상이면 자금조달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A3이상이어야 무리 없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습니다(이것은 채권시장에서 거래 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. 사채시장에서는 이 보다 다양한 조건들의 어음들이 거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).

공통점-

어음과 채권은 둘다 남의 돈을 빌려쓴다는 점에서 같다.

차이점

1)차입기간

어음-만기가 하루짜리에서 1년입니다. 그러나 통상 90일(3개월)짜리가 표준입니다. 따라서 대금지급이라던가하는 단기 자금용통용도로 많이 발행합니다.

채권-보통 만기 1년이상이기 때문에 시설투자등 중장기자금용도를 위해 발행됩니다.

2)발행조건

어음-기업에서 원하면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채권-신용등급이 높아야 하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음 발행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.

3) 은행개입여부

어음 - O

채권 - X

기업어음과 채권의 차이

“Easy”

신용 있는 기업이라면
돈을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음

1

년 미만

(단기)

어음의 특징
: 기간이 짧다.

30일, 60일, 90일, 180일, 365일

